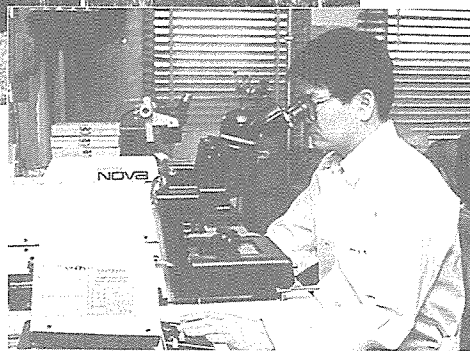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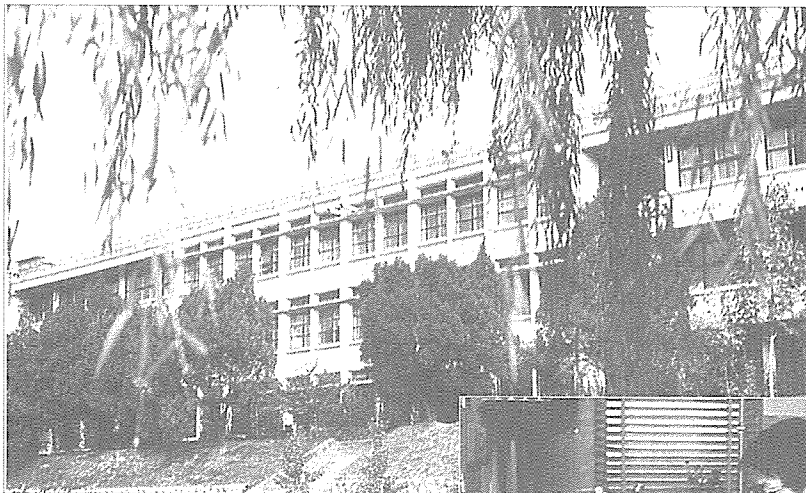


치대 연구소 활성화, 선진 치의학 리더로

연구는 앞으로의 자생력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에 그만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대학에서는 내적 이유이든 외적 이유이든 연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정면에서, 인력면에서 열악한 것이 현재 연구소의 모습이다. 하지만 대학교의 본연 임무인 연구를 위해 연구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각 치대 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각 치대의 연구소 현황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11개의 치과대학이 있다. 서울에는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의 3개교가 있고 부산과 대구에 각각 부산치대, 경북치대, 전북 및 전남에 조선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 원광치대가 있으며 충남에 단국치대가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2년에는 강릉치대가 건립됐으며 전국 치과대학의 개설일자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표 1).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연구소는 모두 16개이며 서울치대 1개, 경희치대 1개, 연세치대 5개, 조선치대 1개, 경북치대 1개, 부산치대 1개, 전남치대 1개, 전북치대 1개, 원광치대, 단국치대 각각 2개이며 92년에 신설된

표 1. 전국 치과대학의 개설일자 및 입학정원

학 교 명	개 설 일 자	입 학 정 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46. 8. 22	100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1966. 12. 8	80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967. 12. 4	60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973. 12. 28	80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1979. 3. 1	60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1981. 3. 1	80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1980. 10. 2	70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1980. 10. 2	40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1980. 10. 2	80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1982. 10. 5	70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1992. 3. 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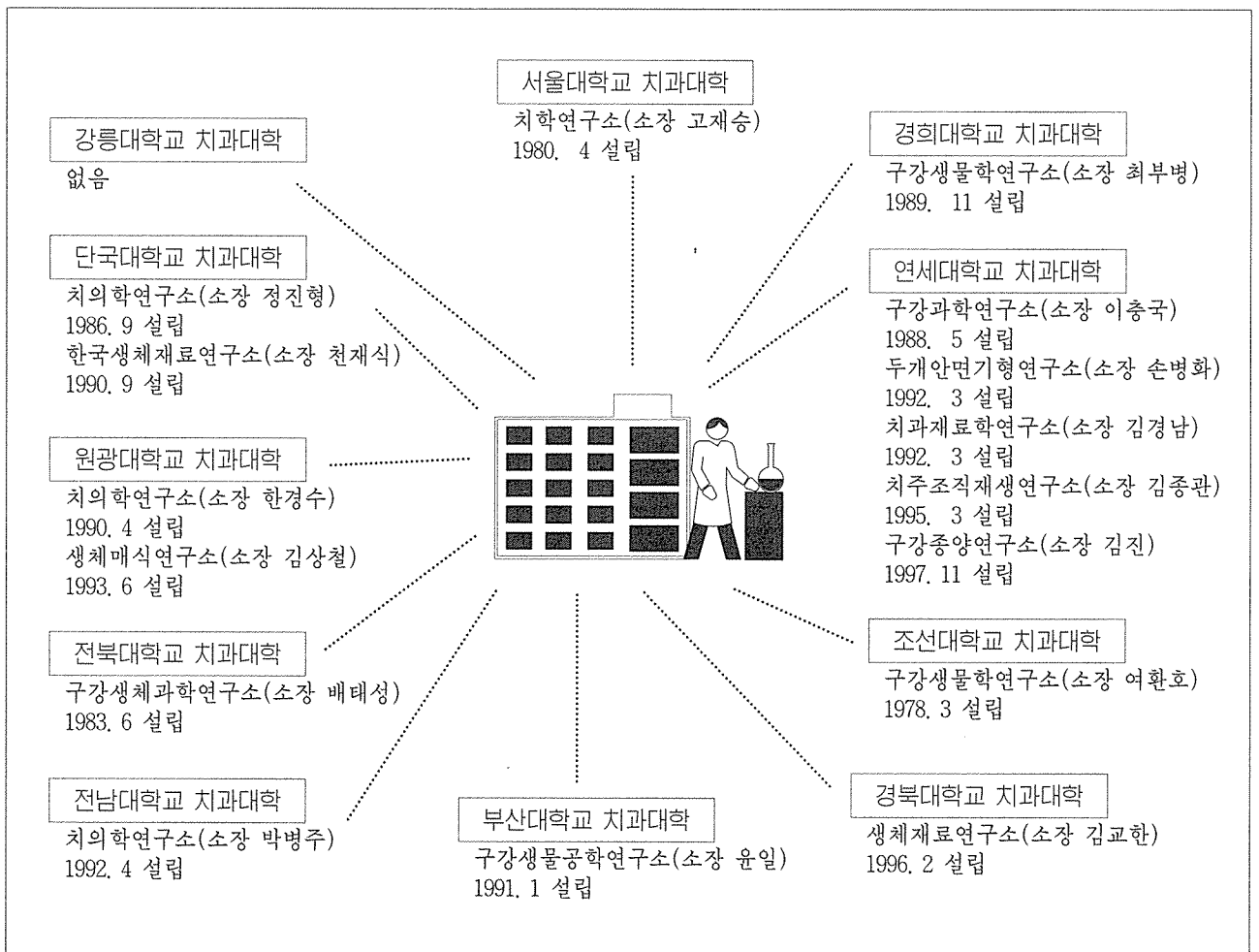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치과대학의 연구소 현황

강릉치대는 아직 연구소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다(그림 1).

서울치대 치학연구소(소장 고재승)는 1980년 4월 4일 설립됐으며 운영위원회 및 기획소위원회와 구강역학 및 건강증진연구부, 구강진단 및 치료제연구부, 구강악안면 암연구부, 의용기자재 및 생체재료연구부, 구강두개악안면생물학연구부, 악안면수복연구부, 연구지원부의 7개 부로 이루어져 있다.

구강역학 및 건강증진연구부는 구강악안면질환의 역학, 병인, 예방과 백신개발, 행동과학 및 영양학 등에 관한 연구를 하며 구강진단 및 치료제연구부에서는 약물요법, 인공타액, 진단용제제 및 유전자기법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구강악안면암연구부에서는 구강 및 악안면암의 분자세포생물학, 조직병리학 및 역학 등에 관한 연구를 하며 의용기자재 및 생체재료연구부에서는 치과 생체재료의 물성 및 생물학적 연구, 생체역학 및 생체전자학 등에 관해 연구한다. 구강두개악안면생물학연구부는 신경과학, 구강경조직 및 연조직생물학, 노인치과학 및 방사선생물학 등에 관해 연구하며 악안면수복연구부는 수복치과학, 악관절 및 교합, 악안면성장발육 및 기형, 구강매식학 및 치주조직재생학 등에 관해 연구한다.

서울치대 치학연구소의 연구실적 현황을 논문 편수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서울치대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논문편수	6	9	18	22	7	11	10	18	13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논문편수	20	28	16	37	42	36	46	43	382

서울치대 치학연구소에서 간행한 내용물을 살펴보면 치학연구소 업적집 제1집(1988년)에는 치학연구소가 설립된 후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연구소를 통하여 발표된 5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으며, 치학연구소 논문초록집에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134편의 논문 국문 및 영문초록이 수록돼 있다. 치학연구소 편람(1988)은 치학연구소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서 설립

목적, 사업내용, 연구부서 및 연구진, 연구시설 및 연구업적 등이 수록돼 있다. 연구용기기 편람(1988)에는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80여종의 연구기자재의 기능, 응용실험분야 및 설치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1991년에는 치학연구소 논문초록집과 치학연구소 논문 영문초록집을 발간했으며 96년에는 치학연구소 요람을 발간했고 동년부터 치학연구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치학연구소의 연구업적 논문집인 치대논문집을 매년 2회씩 발간하고 있다.

서울치대 치학연구소의 발전기금 현황은 11월 현재 1억5천6백여만원이다.

경희치대 는 지난 89년 구강생물학연구소(소장 최부병)를 설립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 함과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와 치의학에 관한 기초 및 임상분야를 연구' 한다는 목적하에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강보건과 치과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에 관한 연구로서 세포생물학연구, 악안면성장발육 및 악기능연구, 구강질환연구, 치과기자재 및 약제에 관한 연구 등을 부서별로 연구하고 있으며 전임연구원은 3명이다. 연 2회 연구논문집 발간과 소속 학회별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구강생물학연구소의 홈페이지는 <http://khlab.kyunghee.ac.kr>이다.

구강생물학연구소의 지난 97년 연구실적 및 업적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함께 치과임프란트 재료를 개발하고 치주조직의 재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또한 40여명의 연구원이 50여편의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각 부서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악안면성장발육 및 악기능연구부에서는 얼굴, 구강 및 치아조직의 발생, 발육, 성장, 치유, 재생 및 노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표본 제작과정, 광학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한 조직형태적 관찰 방법과 세포와 조직배양을 통한 시험관내 연구의 방법 및 조직내 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조직, 세포화학법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patch clamp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의 치주인대섬유모세포의 이온전류 특성과 삼

차신경절세포의 이온전류 특성을 연구중에 있다.

구강질환연구부는 일반병리학, 구강병리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의 강의, 실습 및 연구에 필요한 준비와 조직 표본제작 및 해부병리실로 임상의 biopsy 예를 표본제작 및 진단처리하고 수련의에 필요한 C.P.C를 주관한다. 또한 집단(학교,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구강환경을 역학조사하고 분석한다.

치과기자재 및 약재연구부에서는 치과재료학과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을 함께 연구한다.

구강생물학연구소가 제시하는 21세기 비전을 살펴보면 2천2년까지 연구소 발전기금을 10억원 확보하여 연구소의 연구시설 보완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학술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소의 발전과 나아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연구부서별 전임연구원의 기용을 확대하고 전임사무원을 기용하며 연구소 전용 동물실험실을 개설하고 기자재를 보강하며 각 부서별 효율성을 높여 기능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연세치대 는 구강과학연구소(소장 이충국), 두개안면기형연구소(소장 손병화), 치과재료연구소(소장 김경남), 치주조직재생연구소(소장 김종관), 구강종양연구소(소장 김진) 등 5개의 연구소가 각 사업목적에 따라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강과학연구소는 88년에 설립됐으며 두개안면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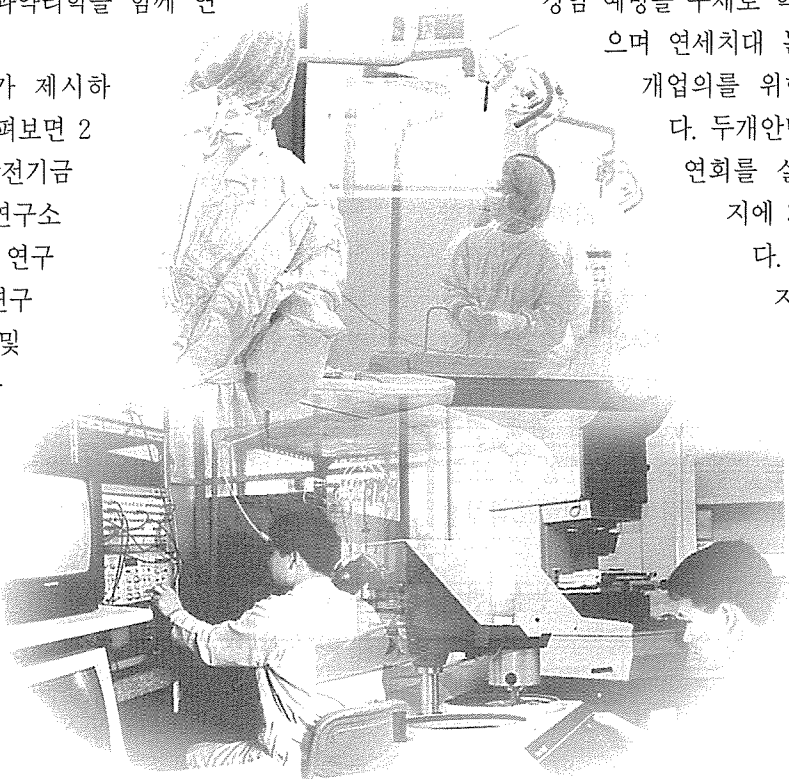
연구소와 치과재료연구소는 92년, 치주조직재생연구소는 95년, 구강종양연구소는 97년에 각각 설립됐다.

작년 97년도의 연구비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및 산학협동 등으로 인한 외부연구비가 2억2천1백여만원, 교내연구비 1억5천여만원, 연세학술연구비가 3천1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구강과학연구소는 구강암 예방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연세치대 논문초록집을 발간하고 개업의를 위한 임상연수를 실시했다. 두개안면기형연구소는 학술강연회를 실시하고 미국교정학회지에 3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99년부터는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치과재료연구소는 연수회 및 특강을 7번 개최했으며 치과재료학 임상안내지인 <임상치재>와 치과재료 종합정보지인 <치과재료> 및 연구소 식지를 발행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치과재료를 시험검사하였다. 치과재료연구소는 97년 외부연구비를

1억9천6백여만원을 확보하고 효성 T&C, 한솔, 태평양 화학과 산학협동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99년 3월 전임연구원을 확보하고 연구에 더욱 몰두할 계획이다.

구강종양연구소는 운영위원회와 병리연구부, 분자생물학적기전연구부, 암예방제개발부, 임상실험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세치대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연구소다. 지난 11월 28일 연세치대 병원에서 개소 1주년 기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연구소는 모두 16개이며 이들 연구소는 외국 치대와 교류, 산학협동 연구,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설 치학연구소 전경

념으로 '구강암 무료상담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구강종양연구소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특화한 연구소로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연세치대 구강종양연구소장 김진 교수는 "기초연구로부터 임상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암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과, 임상과, 기업참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학자간의 체계적인 교류 및 협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학자간의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강암의 발생기전과 암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치대는 현재 지난 78년 설립한 구강생물학연구소(소장 여환호) 1개를 보유하고 있다.

구강생물학연구소는 기획부, 학술부, 연구부의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78년 3월과 9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소 규정 및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강생물학연구소는 외국의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임연구원은 3명이다.

구강생물학연구소는 구강영역의 연조직, 경조직 및 치아의 환경과 기능에 관련된 연구를 기초 임상학적 관점에서 수행하며 대학원생과 지역 치과의사 재교육

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에 의한 외부연구비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부, 한국과학재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2억7천2백여만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벌이고 있다.

구강생물학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기초 및 임상치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벌이고 외부연구 용역사업 및 산학연 협동 교류 및 사회봉사, 학술행사, 간행물 발간사업, 치과의사 및 치의학연구원의 교육과 연수 등을 벌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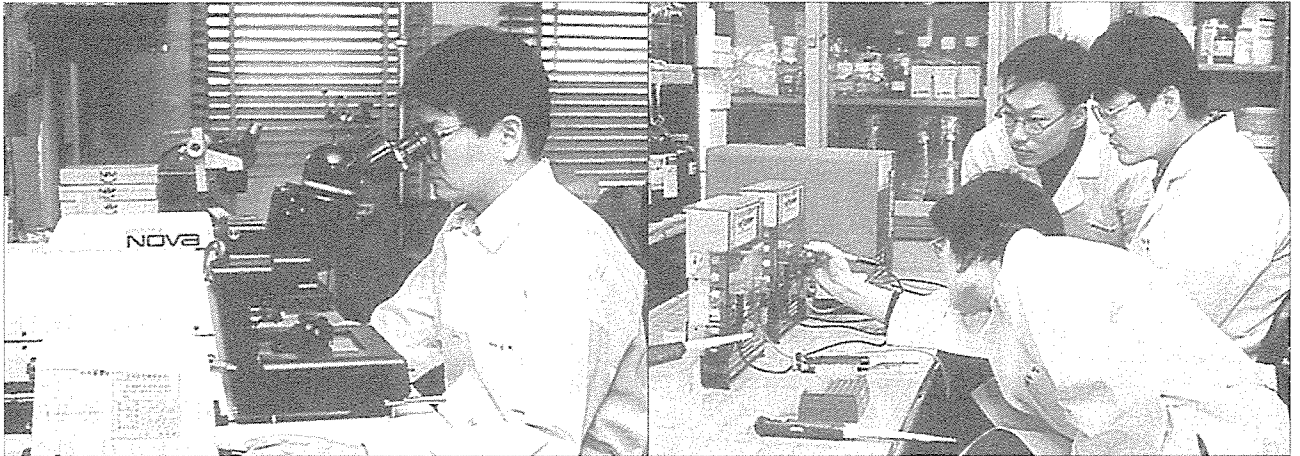
현재 특허를 받은 연구는 없으나 향후 recombinant 골형성 단백 추출에 대한 특허 추출 예정에 있다.

경북치대는 지난 96년 생체재료연구소(소장 김교한)를 건립했으며 연구소의 목표는 생체재료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체재료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 분석하며, 기업의 기술 연구 방향의 제시와 더불어 치과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생체재료연구소는 금속생체재료연구부, 고분자생체재료연구부, 세라믹생체재료연구부, 생체재료녹색평가연구부, 생체재료임상응용연구부, 브로네막임프란트연구부로 구성돼 있다.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임프란트용 Ti 합금의 접촉부식에 관한 연구, 치과주조금속용 주형매몰체의 개발, 고인성 치과용 composite resin의 마모특성 평가, 생체적합성 향상을 위한 Ti의 표면재질에 관한 연구, 생체적합성 인공 치근을 개발했다.

현재 연구중인 것은 치과주조금속용 주형매몰체 개발, 생체적합성 인공 치근을 개발중이며 TiN 이온 플레이팅 장치를 이용한 치과교정용 장치의 코팅방법과 치과용 수복재 수지 조성물로 특허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생체재료에 관한 특색있는 연구소로 성장시킬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되어 앞으로 외부연구비를 수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다.

생체재료연구소는 일본의과치대학 의용기자재연구소 및 중국 상해제2의과대학 생체재료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학술 및 인력교류를 해오고 있다.

전북치대에는 구강생체과학연구소(소장 배태성)가 있다. 지난 83년 건립된 구강생체과학연구소는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초의학적 연구와 임상적 연구,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대내외 학술교류, 치의학 교육 개선책 연구, 치과의사 보수교육 및 보조인력의 훈련,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됐다.

97년에는 특강 10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98년에는 특강 9건을 개최하고 한중 국제심포지움과 한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원광치대는 지난 93년 생체재료매식연구소(소장 김상철)를 건립했다.

생체재료매식연구소는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에 관한 이론 및 실제연구를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학연협동을 통하여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를 개방하고자 건립된 것이다.

생체재료매식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새

로운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의 독성 실험, 자료정리, 통계 및 간행물 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국내외 훈련과정과 워크숍 개최 및 참여, 적절한 생체재료 및 매식재료의 추천 및 공급, 학문 및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협조 등이다.

생체재료매식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회에서는 제1연구부인 기초연구부, 제2연구부인 임상연구부와 제3연구부인 골은행연구부로 구성돼 있다.

생체재료매식연구소는 실용적인 것을 연구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전인구의 노령화가 선진국 수준까지 이른 현재, 생체재료·매식재료의 선진화가 요망되고 특히 노인층의 치과적 처치, 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치과계에 우수하고 경제적인 생체재료, 매식재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꾀하고 있다.

최근 동국제약, 삼양사 등과 산학협동 하에 연구를 진행,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70여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생체매식재료의 조직의 친화성, 조골세포의 세포고사 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재정과, 인력 면에서 어려움 겪어

치대 연구소 운영의 어려운 점은 재정과 인력 문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고
정부 및 산하단체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앞으로 치과계가
외부연구비를 얻기 위해서 더욱
내실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연구비 수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로 귀결되는 듯하다. 각 치대의 전임연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임연구원이 없거나 많아야 5명을 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그들의 보수는 연구비에서 지급되고 있다. 연구소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도 자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치대 K교수는 “본부로부터 예산 및 인원의 지원이 전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현실”이라고 말했으며 W치대의 K교수도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K교수는 “연구소에 대한 투자없이 연구내용만 요구하니 연구소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당국 및 정부, 치협 차원에서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 이후 연구개발비 축소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돼 버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간한 '98년판 산업기술백서-IMF 체제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전략'에 따르면 98년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는 97년에 비해 9.9%가 감소한 9조7백1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비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조사를 시작한 81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정부도 지난 4월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혁신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발표로 연구원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폭넓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된 장기연구개발 과제의 축소, 신규 프로젝트의 미착수, 축적된 기술의 유실, 연구소의 위상 약화 등이 향후 기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 연구소의 IMF 이후 구조조정에 대해 조선치대 여환호 교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연구소의 조직이 방대하지도 않고, 연구소가 병원 및 대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연구소 운영을 어떻게 하면 독자적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연구소의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의 연구소는 구조조정할 것이 없다’, ‘열악한 연구환경과 연구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소의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치과계에서도 참여한 바 있는 G7프로젝트 가운데도 중도하차하는 사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학기술원과 한국특수메탈,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대형 디젤엔진 내마모 부품으로 쓰이는 신소재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1억6천7백만원을 투입해 1차년도 목표인 세라믹 소재와 이를 이용한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참여기업인 기아자동차는 부도로 좌초됐고 한국특수메탈도 매출격감과 경영악화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었다. 심사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이들 기관의 과제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중단을 결정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도 재정난으로 투자재원이 계속 줄고 있다. G7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투입하는 연구비는 97년 2천4백51억 원에서 98년에는 2천2백49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1천9백9억 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17.8%가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고 정부 및 산하단체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앞으로 치과계가 외부연구비를 얻기 위해서 더욱 내실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연구비 수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학연 협동, 연구비 획득과 연구의 질 높여

최근 먹는 라면스프 봉지가 개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라면스프 봉지를 키토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라면스프를 뜯는 번거로움 없이 면발과 함께 끓여먹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산학연 연구의 성공작이라 볼 만하다.

산학협동과 관련 경북치대 김교한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연구수준이 미흡해 산학협동에 어려움”이 있고 “생체 재료를 포함하는 국산 치과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이 소규모”이며 “유통과정이나 치과의사들이 국산품을 기피”해 산학협동을 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원광치대 김상철 교수도 “생체재료, 매식재료 개발은 생산으로 연결돼야 유용 가치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외부 산업기관과의 연계,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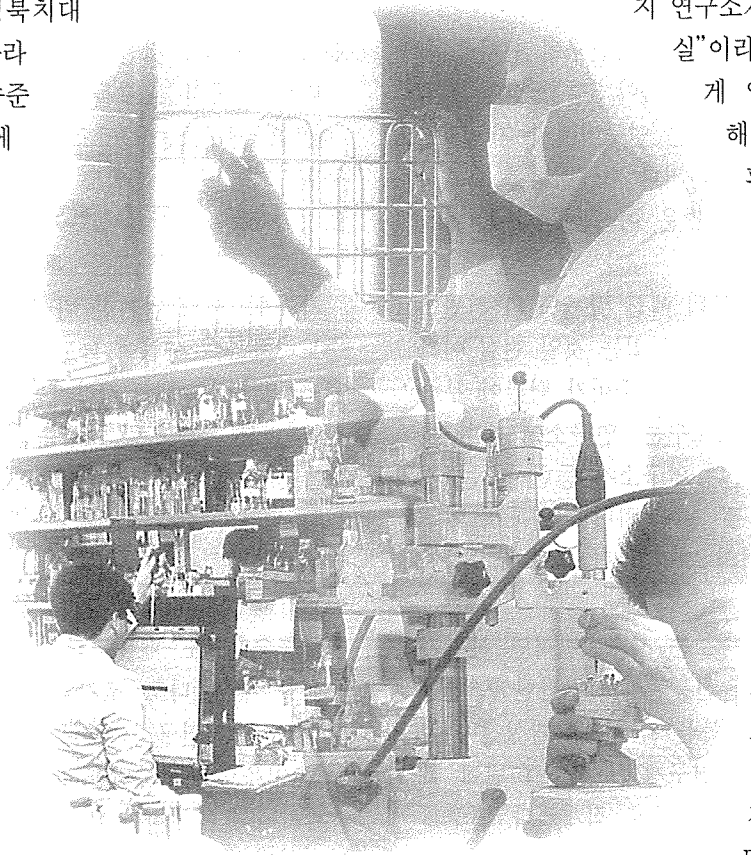
연세치대 김진 교수는 “기업이 치료제에는 적극 투자하지만 예방제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오랜 연구를 거쳐 경쟁이 될 수 있는 것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의 투자 풍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월 한국화학연구소는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와 함께 관련업체를 상대로 산업체,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는 IMF 시대를 맞아 삭감된 연구비를 기업체의 지원으로 보전하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줌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같은 행사에 참석한

키스트 장재중 대외협력실장은 “지금까지 연구소가 폐쇄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개방시대에 맞게 연구소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치과계에서도 발로 뛰는 사업을 통해 각 기업체와 학계가 연계하여 연구물을 전시하고 함께 연구하는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대학의 교수는 “일부 연구소의 구성원이 자기의 영역을 너무 좁히고 한계를 미리 설정해 학교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연구하고 상호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대 연구소는 다양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구강보건과 치과 기초 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를 하고 있다.

특화된 연구소만이 살 길

연구소가 교수의 연구심을 진작시키고 학술대회와 다양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대의 연구소는 독립

앞으로의 연구는 임상과 관련되어
결과물이 상품성 있는 연구, 그리고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복지부 등에서 연구비를 수혜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로 연구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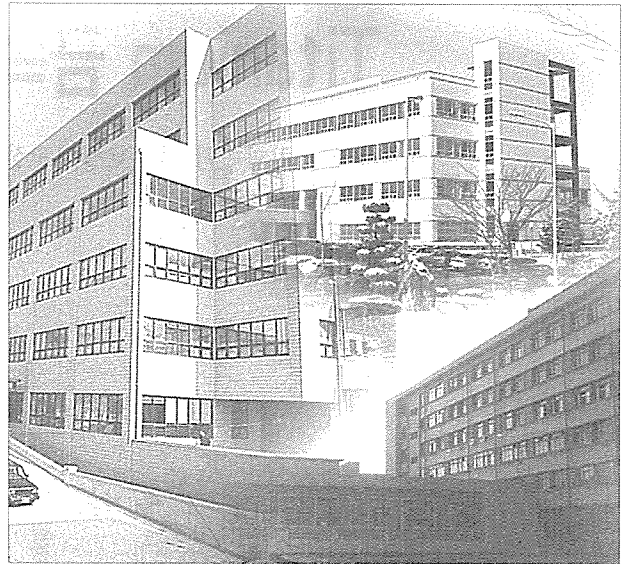
적이 아닌, 치과병원 및 치과대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연구소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치과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내에서도 치대의 연구소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치대의 연구소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 및 위상에 대해 조선치대 여환호 교수는 “사회에서 치과 관련 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연구소의 활동에 따라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면 자연히 치과계 내에서도나 일반 사회에서도 치과 관련 연구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각계 학자에게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경희치대 신제원 교수는 “앞으로는 특화된 연구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책사업인만큼 연구소끼리의 경쟁보다는 특화된 연구소를 구축하여 덴탈과 덴탈의 경쟁이 아니라 덴탈과 메디컬의 경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연세치대의 구강종양연구소는 최근에 건립된 특성화된 연구소 중의 하나다.

연세치대 구강종양연구소장 김진 교수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독창성 있는 연구결과를 뿌리



현재 대학에서는 내적 이유이든 외적 이유이든 연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대학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근본적 자생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내리고 트레이드마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치대 신제원 교수는 요즘의 연구 경향에 대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적용 단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성화된 연구소를 통해 기초연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빠른 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임상과 관련되어 결과물이 상품성 있는 연구, 그리고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복지부 등에서 연구비를 수혜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로 연구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 현실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임상에 대한 다양한 축적된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조망한다.

아직 대학내에서 연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뿌리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치의학계 당사자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현재 본격적인 연구 풍토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자리잡기가 한창이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앞두고 치의학에서 부문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치의학 선진사회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